

도의회 의정 중계식

녹색생활 채식문화 조성

이명연 도의원 발의조례안, 의회 상임위 통과 채식의 날 지정 운영·식단 지원 등 명시돼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문화 조성을 위해 전북도의회가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연 의원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염두에 둔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하는 행동인 '기후미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채식은 일상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 실천의제 중 하나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가정책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구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연 의원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염두에 둔 음식을 준비하고 접대하는 행동인 '기후미식'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채식은 일상생활 속 기후변화 대응 실천의제 중 하나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가정책에만 국한되지 말고, 전북도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이 구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 정례회 개최 8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 도의회 정례회가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운데)와 김승환 교육감, 도의원들이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군산항 해상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 조속 설치돼야”

나기학 도의원, 촉구 건의안 발의... 물동량 증가 기대

군산항 물동량 증가를 위해 군산항에 해상전자상거래 특송화물 터미널을 설치할 수 있는 '특송장치장'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기학 의원은 "최근 군산항 자동차 수출입차량의 핵심축 중 하나인 기아 자동차 군산사무소가 철수했고, 주력 화물 중 하나인 사료의 물동량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군산지역에서 가동 중인 3곳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우드펠릿마저 대부분이 군산항이 아닌 광안항을 통해 입고 되고 있어 하역시설 비롯한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군산항 전자상거래 특송장치장이 설치되면 현재 인천항까지 보세운송되는 특송화물의 물류비를 줄이고 동시에 화물의 배송 기간까지 단축할 수 있어 수도권 이남지역 해외 직구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 역시 특송화물에 대한 빠른 통관이 이뤄진다면, 중국 간 특송화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고용창출 및 다양한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북도,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1년 전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사례에 부자금융과(도), 진안군(시·군)이 각각 선정됐다. 도는 도전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8일 2021년 전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읍·면·동장과 머리 맞댄다

지방자치단체개발원, 공유 워크숍 오늘 개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개발원(원장 김경희)은 지자체의 역할 인식 제고를 통해 국정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오늘 오후 2시부터 '읍·면·동장 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은 주요 국정과제의 내용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방자치 일선현장에서 읍면동장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개발원 김경희 원장은 "읍·면·동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행정의 최일선 현장으로, 읍·면·동의 역할 수행에 국정현안의 원활한 추진 여부가 달려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현장에서 바로 뛰고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정책 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의원 명단 공개

부동산 명의신탁 - 김주영·김희재·문진석·윤미향 농지법 위반 -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홍·이상호 업무상 비밀이용 -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등 총 12명 "의혹 해소해달라" 지역구 의원 탈당·비례대표는 출당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 20일 김태연 비대위원장 명의로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지난 4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816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명단에는 총 12명의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 6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였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의원은 김주영(조선·경기 김포갑), 김희재(조선·전남 여수을), 문진석(조선·충남 천안갑), 윤미향(조선·비례) 의원 등 4명이었다.

“국민자산 5억원 성공시대, 구체적 플랜 있다”

'대권 도전' 민주 박용진 의원, 전북 찾아 공약 피력 "국민연금 기금분부·투자공사 통합 '테마섹' 설립"

대권 도전에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을)은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첫 대선 공약에 대해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해 있는 전북의 역할이 큰 만큼 우선 배지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선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생맥주 경감세율 2023년 말까지 연장

김수홍 의원, 주세법 개정안 발의

김수홍 국회의원(익산갑, 기획재정위)이 지난 7일 생맥주에 대한 경감세율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수홍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맥주 판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경감세율 적용을 2년 연장

하는 개정안을 낸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수제맥주 제조사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한편, 가격 인상 억제에 통해 생맥주 소비자들에게도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김수홍 의원은 "이번 주세법 개정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돌보는 입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